제주해녀라면, 속초홍게라면, 순창고추장찌개라면, 부산어묵탕라면…

지역 '맛' 담은 편의점PB… 고객입맛 높이고 경제 살리고

지역별 특산물 살린 라면에 이어
도시락·음료에도 다양하게 활용
우수한 품질에 인지도 높여 호응↑

CU 라면로드 시리즈와 횡성한우 불고기영양밥. /BGF리테일

편의점들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거나, 특색을 담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편의점만 4만 개. 골목 곳곳에 위치한 점포들은 어느덧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은 컵라면, 도시락, 음료, 맥주 등 다양한 제품군에 '지역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품질 재료로 맛을 높이는 한편, 로컬 푸드(Local food)의 유통 인프라로써 역할을 도모하는 것이다.

GS25와 GS수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10여 곳이 넘는 광역·기초 자치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사회 판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GS리테일이 지난 8월 선보인 '유어스 제주해녀 해물맛 라면'(이하 해녀라면), '유어스 독도사랑 새우맛 라면'(이하 독도라면)은 대표적인 지역 상생 상품이다.

'해녀라면'의 경우, 지난 5월 GS리테일과 제주해녀협회가 체결한 브랜드 계약의 일환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판로 확대와 기부를 동시에 잡은 대표적 지역 상생 모델이다. 제주 해녀가 직접 잡아 올린 뿔소라를 사용한 제품을 GS리테일이 판매하고, 판매 수익의 일부는 제주해녀협회로 기부돼 지역 사회 발전에 사용되는 형태다. '독도라면'의 판매 수익 일부는 울릉군에 기부된다.

GS리테일뿐만 아니라 CU, 세븐일레븐 등도 지역 특산물을 담은 라면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편의점들의 지역 PB 상품은 트렌드 변화가 활발한 라면 시장에서도 주목 받는다.

CU는 '속초홍게라면', '통영굴매생이라면' 등을 선보였는데, '속초홍게라면'의 경우 강원도 속초의 명물인 홍게에서 추출한 깊고 진한 액상소스를 사용해 얼큰한 해물탕 맛을 냈다.

세븐일레븐은 지역 라면을 몇 년에 걸쳐 4탄까지 출시했다. '강릉 교동반점 짬뽕', '순창고추장찌개라면', '부산어묵탕라면', '강릉 초당순두부라면' 등이다.

비단, 라면뿐만 아니라 도시락이나 음료에도 지역 특산물은 두루 활용된다.

최근 출시된 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CU의 '팔도진미 간편식 시리즈'가 있다. CU는 전라도편을 시작으로 경상도, 충청도편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팔도진미 전라도편은 호남평야에서 자란 신동진미로 지은 흰 쌀밥, 전라남도식 떡갈비와 광양식 돈불고기, 완도 김과 시금치나물, 명태무침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라도의 맛을 살리기 위해 생김치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GS25가 지난 12일 선보인 '유어스 펀치볼 시래기 된장국'도 지역의 맛을 고스란히 살렸다.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고산분지 펀치볼의 특산물 '시래기'를 담은 것. 일반 시래기보다 원가가 2~3배 높은데, 맛과 품질은 그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오현택 GS리테일 가공식품팀 MD는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각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품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의점들의 지역 상생 마케팅은 향후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과의 MOU 등을 통해 제품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CU는 지난달 30일 '지역 특산물 또는 레시피를 활용한 편의점 도시락 및 HMR 상품'을 주제로 '제1회 대학생 레시피 경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CU는 수상작, 출품작 중 상품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전국 CU에 출시할 예정이다.

GS리테일도 지난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발굴한 전남 영암 지역 내 무화과 농가와의 직거래로 100톤 분량의 무화과를 확보, 10일간 특가에 판매한 바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차별화 마케팅, 1500억 매출 올린다"

경북 대표 아울렛으로 거듭날 것
가족고객 위한 패밀리형 MD 강화

현대시티아울렛대구점 전경. /현대백화점

대구광역시에 도심형 아울렛 '현대시티아울렛'이 들어선다.

현대백화점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대백아울렛 동대구점'을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으로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여섯 번째 아울렛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상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점포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7월, ㈜대구백화점과 '대백아울렛 동대구점'을 10년간 일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백화점은 ▲패밀리형 MD 강화 ▲가족 단위 문화 콘텐츠 다양화 ▲현대백화점 대구점과의 마케팅 협업 등을 통해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을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아울렛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은 영업면적 2만8519㎡(8627평) 규모로, 지상 1층부터 8층까지 영업 매장이 들어선다. 주차장은 지하 6층부터 지하 1층까지로 총 711대를 주차할 수 있다.

대구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복 10차로의 동대구로와 연결돼 있어 대구 전 지역에서 30분, 경북 전 지역에서도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아 '대구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동성로 로데오거리' 반경 3km 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다.

조재현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장은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한 노하우와 입지적 강점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아울렛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차별화된 MD와 마케팅을 통해 개점 후 1년간 약 1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의 매장 콘셉트는 '도심 속 세련되고 편안한 아울렛'으로 이번 오픈을 앞두고 패밀리형 MD를 강화했다.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에 입점하는 브랜드 수는 총 200여 개다. 입점 브랜드 수를 기존 대백아울렛보다 20여 개 늘렸다. 입점 브랜드 수가 대구지역에 있는 아울렛 중 가장 많다. 새로 입점한 브랜드 중 클럽 캠브리지·템퍼·플랙진 등 28개 브랜드는 대구지역 아울렛에서 첫 선을 보이는 브랜드들이다.

또 가족 단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스포츠(나이키·아디다스 등), 리빙(템퍼·실리트 등), 구두(탠디·미소페 등), 여성패션(데무·기비 등) 영캐주얼(시슬리·지오다노 등) 등 패밀리형 핵심 MD를 대거 보강했다.

3층에는 오프 프라이스(OFF PRICE) 스토어인 '오프웍스(OFF WORKS)' 임시 매장이 들어선다.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는 유명 브랜드의 재고 상품을 유통업체가 직접 매입해 할인율을 기존 아울렛 제품보다 높여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오프웍스 할인율은 최초 판매가 대비 75~90%로, 통상적인 아울렛 제품 할인율(30~60%)보다 30~45% 가량 높다. 솔리드옴므·아디다스·나이키 등 일부 브랜드를 대상으로 오프웍스를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브랜드를 3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은 직선으로 3.3㎞ 거리에 있는 현대백화점 대구점과의 마케팅 협업에 나선다. 오는 10월부터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과 현대백화점 대구점 각 점포에서 DM과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발송되는 무료주차권(2시간)을 두 점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우수 고객 대상으로 증정하는 '프리미엄 쿠폰북'에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사용 가능한 음료 쿠폰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통 단신

파리바게뜨 '실속형 추석 선물세트'

파리바게뜨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파리바게뜨 카페 대학로점에서 추석을 맞아 1~2만원대의 '실속형 추석 선물세트'와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관련 제품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롯데리아

원피스 LED 스탠드 한정판매

롯데리아가 유명 애니메이션 원피스 캐릭터 LED 아크릴 스탠드 5종을 한정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8만개 한정으로 선보이는 원피스 LED 아크릴 스탠드는 최대 높이 14㎝의 캐릭터 스탠드와 LED 라이팅 기능을 갖춘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희귀한 아이템이다.

원피스의 루피, 에이스, 샹크스, 로, 징베를 선별해 제작했다. 모든 세트 구매시 6000원, 단품 1만원, 그리고 5가지를 한 번에 구매할 있는 스페셜 에디션 패키지까지 준비했다. 스페셜 에디션에는 한정판 아크릴 거치대도 포함되어 있고 가격은 3만원이다. /박인웅 기자

전자랜드 '의류 케어 특별전'… 무이자·캐시백 혜택

전자랜드프라이스킹이 '의류 케어 특별전'을 진행한다.

전자랜드는 오는 30일까지 '의류 케어 특별전'을 진행, 건조기·의류관리기·세탁기 구매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건조기, 의류관리기의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은 각각 222%, 142% 증가했다. 작년 전체 판매량과 비교하면 각각 1.6배, 1.2배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전자랜드는 건조기 등 인기 품목들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판매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먼저, 롯데제휴카드로 결제하면서 삼성전자·LG전자의 14㎏ 이상 건조기, 대우전자·오텍케리어·대유위니아의 건조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고 36개월 무이자 혜택과 5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자랜드가 오는 30일까지 의류 케어 특별전을 실시한다. /전자랜드프라이스킹

또한 두 가지 품목을 동시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삼성전자·LG전자의 드럼세탁기 21㎏ 이상 제품과 건조기를 함께 구매하면서 삼성·신한·KB국민카드로 결제 시 합산 금액이 40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밖에 삼성·롯데카드로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와 건조기를 함께 구매하거나, LG전자의 스타일러와 건조기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격대가 높아도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가전제품에 고객들의 관심이 많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건조기와 의류관리기는 점점 인기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오뚜기

'한입가득 만두' 3종 출시

오뚜기가 한입 가득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한입가득 만두' 3종(사진)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입가득' 만두는 기존 만두시장에는 없던 새로운 맛의 만두로 버섯, 피자토핑, 치즈 등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만두소가 특징인 제품이다.

'한입가득 버섯물만두'는 한입가득 커다란 크기로 기존 물만두 대비 2배나 큰 중량을 자랑한다. '한입가득 피자군만두'는 바삭하고 쫄깃한 만두피속에 풍부한 치즈와 차별화된 피자소스, 다채로운 마르게리따 피자토핑이 한 가득 들어있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한입가득 크림치즈군만두'는 크림치즈, 모짜렐라, 체다치즈 등 총 3가지의 치즈를 만두피 속에 듬뿍 넣어, 고소한 치즈의 맛과 향을 한입가득 느낄 수 있는 만두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